#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 10주. 문학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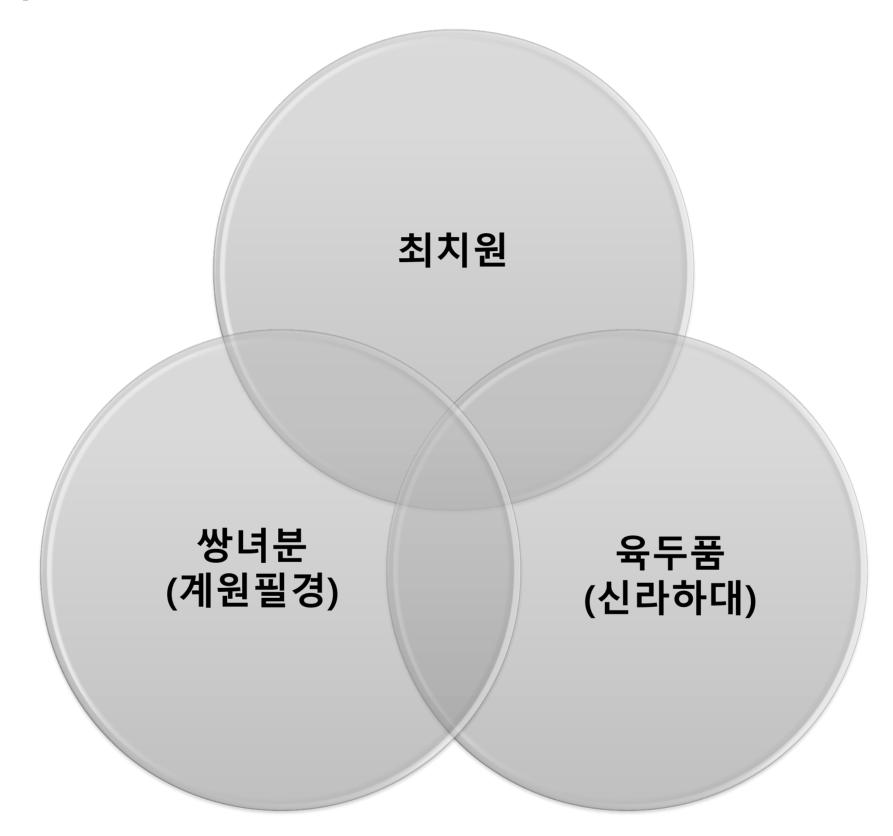
•2차시. 불우한 천재의 사랑: <최치원> 2

#### 학습목표

- 1. 역사적 인물 <최치원> 이야기를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 2. <최치원>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김미령 교수

# 🔎 작품 이해 실마리



### 최치원

- 신라 학자(857-?)
- 신라 3최 중 한 사람(최승우, 최언위), 경주최씨 시조
- 본관은 경주, 자는 고운(孤雲)·해운(海雲)
- 경문왕 8(868년), 12세때 당나라에 유학, 18세에 빈공과 장원급제
- 881년 '황소의 난' 때 <격황소서(檄黃巢書)> 지음
- 885년 신라로 돌아와 헌강왕에 발탁(17년만에 귀국)
- 진성여왕 때(894년) '시무책' 올리고 육두품 '아찬'에 오름
- 문집으로 <계원필경>과 함께 <사산비명> 등이 전함

#### 신라하대

- 885년 29세의 최치원은 귀국하여 한림학사직을 수행
- 886년 헌강왕이 승하하고 최치원은 외직 태산군수로 나감 (삼국사기, "신라가 쇠퇴하는 때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될 수 없었다.")
- 887년(진성여왕 1년)에는 대기근이 들고 세금이 걷히지 않음
- 889년 세금을 독촉, 이에 농민들이 사방에서 봉기
- 중앙에서는 진골귀족이 부패하고 급성장한 지방호족들은 중앙정부를 위협
- 894년 최치원은 개혁안인 시무책 10여 조를 올림
- 진성여왕은 최치원을 6두품 신분의 최고 관직인 '아찬'에 제수
- 시무책 10여 조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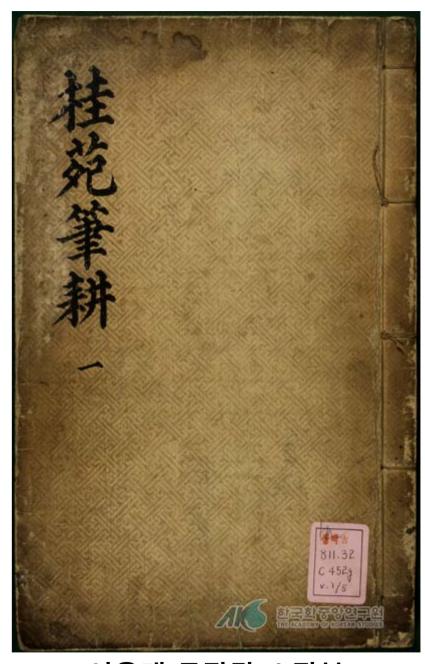
### 육두품

- 성골, 진골 다음으로 높은 신분
- 신라의 학문과 사상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
- 17관등 중 6관등인 '아찬' 이상의 벼슬을 할 수 없었음
- 신분의 한계를 안고 있어서 당나라 유학길을 택하기도 함
- 신라 희강왕 2년(837) 시 당나라 국학 유학생은 모두 216명
- 신라의 3최(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 육두품 출신의 대표



### 계원필경

- 최치원의 시문집, 20권 4책
- 885(29세)년 중국 회남에서 귀국하여, 이듬해에 당나라에 있을 때 지었던 자신의 작품을 선별하여 당시 신라왕인 정강왕에게 바친 문집
- 당나라 관리로 재직 중 작성한 공식문서(표장(表狀)·서계
  (書啓)·격문(檄文)) 등이 수록
-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토황소격문

- '황소'에게 항복을 권하는 글(격황소서)
- 난을 진압하는 총사령관 고변(高騈)을 대신하여 작성
-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황제에게 '자금어대'를 하사 받음

#### ※ <황소의 난>

소금장수였던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자, 회남의 절도사였던 고변이 이를 토벌하는 총사령관이 되고, 최치원을 종사관으로 발탁



### 토황소격문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해서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순응해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러 패하는 법이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이 모두 너를 죽여 시체를 늘어놓으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요, 지하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 이미 논의를 마쳤느리라."

-최치원, 계원필경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

 이규보: "황소가 이 격문을 읽다가 책상에 나뒹굴어졌다니 귀신을 울리고 바람을 놀라게 하는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겠는가."

## 쌍녀부



강소성 율수현위 '쌍녀분' (현 남경시 고순현 이가촌)



중국 남경시 율수현의 '최치원' 동상 (2000년 10월 16일 세워짐)

(출처) KBS 1TV `**역사스페셜**`에서 '**최치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2000년 11월 방영)

### <추야우중>

秋風唯苦吟 추풍유고음 (가을 바람에 오직 쓸쓸히 읇나니) 世路少知音 세로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적구나) 窓外三庚雨 창외삼경우 (창밖 깊은밤 비는 내리고) 燈前萬里心 등전만리심 (등불 앞에 내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능력이 있어도 신분상의 제약으로 자신의 재능이 쓰이지 못하는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슬픔, 비애감이 잘 드러남

## 🔎 Quiz로 정리하기

- 1. 다음 설명 중 맞으면 0, 틀리면 X 하시오
  - ① 최치원은 문집으로 계원필경을 남겼다.
  - ② 최치원은 육도품 출신으로 6등급인 '아찬 ' 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 ③ 최치원은 황소의 난 때 <토황소격문>을 작성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 ④ 최치원은 경주 최씨의 시조이자 신라의 학자이다
  - ⑤ 최치원의 집안은 성골 출신으로 출세에 한계가 있었다.
  - ⑥ 최치원은 18살에 당에 건너가 과거에 합격했다.
  - ⑦ 지방의 호족이 득세하면서 왕권이 약해졌고, 재정도 바닥나다시피 했다.
  - ⑧ 최치원은 894년 시무책 10조를 지어 진성여왕에게 상소했다.
- ⑨ <추야우중>은 세상에 자기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절대 고독감을 표현했다